

사회

“이럴수가” 4만 관광객 헛걸음 ‘허탈’

나로호 발사 중지 고홍 현지 표정

“우리 기술로 쏘는 날 빨리 왔으면”

19일 오후 나로호 발사 갑작스럽 게 중지되면서 고홍을 찾은 4만여 명의 관광객들은 허탈감과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고홍군에 따르면 전국에서 나로호 발사를 구경하기 위해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으며, 군은 영남면 남열리 해돋이 해수욕장(2만명 수용)과 점안면 팔영산 등 관내 7개 지점을 주요 ‘뷰포인트(관망지점)’로 선정해 관광객을 분산시키는 등 민반의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발사를 불과 7분여 남겨 놓고, 기술적 결함으로 발사가 연기되면서 남열해수욕장 등 주요 지점에서 숨죽여 나로호를 바라보던 관광객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순천에서 온 정현미(여·36)씨는 “오늘은 적어도 발사되었다고 생각해 애들하고 함께 왔는데 너무 아쉽다” 고 말했다.

김석훈(24·대구시)씨는 “담양허 발사는 뭘 것으로 생각했고, 정상궤

도에 오르기만을 기원했다”면서 “발사하는거년 연기에 대한 별다른 이유도 듣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마음이 무겁다”며 아쉬워 했다.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휴가차 고홍을 찾았다는 서민수(48)씨는 “결국 발사 기술을 제공한 러시아측의 실수에 따른 연기가 아니겠느냐”면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스스로 우주 발사체를 쏠아 올리는 날이 왔으면 한다”고 지적 했다.

나로호 발사 특수를 기대했던 고홍 지역 숙박업소나 식당도 몰상이다.

고홍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식당은 물론 모텔이나, 민박 등도 예약 취소가 이어졌다”면서 “예약 취소한 손님도 “다시는 고홍에 오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속상해 했다.

고홍군도 충격에 휩싸였다. 나로호 발사에 모든 군정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려 7차례나 연기되면서



아쉽게 돌린 발길

19일 나로호 발사장면을 보기 위해 고홍군 영남면 남열리 해돋이 해수욕장을 찾은 국민들이 발사연기 소식을 들은 뒤, 허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발길을 돌리고 있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군 행정력마저도 차질이 예상되게 됐다. 여기에 고홍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지역 이미지가 안 좋게 각인 될 수도 있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군 관계자는 “무엇보다 고홍에 찾

아준 관광객에게 죄송하다”며 “추후 발사일에도 이처럼 많은 분들이 오지 모르겠다”며 걱정했다. 한편 국내·외 50여개 언론사 400여명의 취재진이 이날 나로우주센터내 프레스센터도 크게 술렁이는 모습을 보였다.

한 취재 기사는 “불과 10여분 전만 해도 발사가 확정적인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취소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주각종기자 gjju@

Weather forecast for today (오늘 날씨) showing a map of Korea and a table of regional weather conditions. Includes a table for sea conditions (바다) and a 7-day forecast (주간날씨).

Advertisement for Kwangju National University (광신대학교) featuring a photo of students and the university logo.

김대중 前 대통령을 그리는 사람들

생가 복원 120만원 보탬 대구 노인들

“대선때 비방 참회...존경의 마음 키웠죠”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복원사업에 참여한 김상수(74·대구시)씨는 “김 전 대통령과 직접적인 인연은 없지만, 대통령 탄생을 계기로 존경의 마음을 키웠었다”고 했다.

김 웅이 대구지역 노인회 회원들과 하 의도를 첫 방문한 것은 제 15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1998년 2월 25일.

‘경상도 노인’ 김 웅 등이 이곳을 찾은 배경은 15대 대선 과정에서 ‘전라도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김 전 대통령을 욕하고 비방했던 ‘잘못’을 참회하고 싶었기 때문 이다.

김 웅 등은 ‘경상도 사람’이라며 환대해 주는 하의도 부녀회의 따뜻한 마음에 감

동한 나머지 결연까지 맺었다. 그러곤 이듬해 또다시 하의도를 찾았다.

하지만, 이들은 대통령 취임 후 1년이 지나도록 대통령의 생가가 없다는 사실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 김 웅은 “대구로 돌아온 뒤 노인회 회원 120명이 1만원씩 모은 120만원을 전남도에 우편환으로 전달했다”면서 “편지에는 ‘일국의 대통령 생가가 없는 게 말이 안 된다. 조속히 생가를 복원해달라’고 적어 보냈다”고 말했다. 이후 전남도에서 “감사하다 복원사업은 국민의 뜻에 따라 곧 이뤄질 것”이라는 회신이 왔고, 생가는 1999년 6월 복원 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바둑판 선물 받은 ‘달성경로당’ 노인들

“기념관에 전시 고인 기릴 유품 되길”

19일 목포시 죽곡동 달성경로당에서 만난 노인 10여 명은 조문 일정을 짜느라 바빴다. 이 마을 주민들은 고인과 소중한 인연을 수십 년째 간직하고 있다.

40여 년 전 고인이 정치에 첫발을 내디딜 당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목재 바둑판’(가로 80cm, 세로 85cm)을 경로당에 기증했기 때문이다. 달성경로당은 1919년 목포에서 최초로 건립된 경로당 이다.

이 바둑판을 마치 가보(家寶) 인양 애 지중지했던 마을 주민들은 지난 3월 초 박 지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다 나중이라도 후손들이 고인을 기릴 수 있는 소중한 유

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탓이다. 노인들은 김대중 기념관이나 도서관 등에 전시해 많은 이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 며 박 의원의 뜻을 전했다.

서홍기(75) 달성경로당 노인회장은 “고인이 목포에서 첫 민의원에 당선된 뒤 기념으로 고향 어르신들이 모이는 경로당에 바둑판을 선물한 것 같다”며 “어르신 들한테 참으로 잘하셨던 본인데, 뜻을 다 못 이루고 가신 것 같아 아쉬울 뿐”이라고 말했다.

달성경로당 회원 45명은 20일 목포역 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조문할 계획이 다.

/이충형기자 golee@kwangju.co.kr

DJ 단골식당 ‘인동주 마을’ 우정단씨

“꽃게장과 ‘평화주’ 잘 드셨는데 ...”

건장했던 몇 년전만 해도 김 전 대통령이 즐겨 먹던 꽃게장을 담았던 ‘인동주(忍冬酒) 마을’ 식당 주인 우정단(여·59·목포시 옥암동)씨의 슬픔은 이루말할 수 없다.

김 전 대통령과 같은 고향인 신안 하의도에서 태어나 27세 때 목포로 나온 우씨는 13년 전 자신만의 비법으로 인동주를 손수 개발했다.

애초 인동주는 고인의 고향인 신안군 하의도((荷衣島)에서 자생하는 인동초의 인동꽃과 쌀, 누룩 등을 섞어 만든 막걸리 로, 하의도 주민들이면 웬만하면 담귀떡 는 술이다. 우씨는 상표 이름도 고인의 노벨 평화

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 ‘평화주’라고 지었다.

이 평화주는 대통령 재직시절 청와대 공식 행사 때 자주 사용됐으며, 이 때문에 지금은 목포 지역에서 상당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또 김 전 대통령은 이 식당의 꽃게장을 즐겨 했으며, 어떤 때는 아들인 김홍일씨 나 비서진들이 서울에서 내려와 꽃게장을 구입해 가기도 했다고 한다.

우씨는 “고인이 입맛이 없을 때 비서진들이 직접 찾아와 꽃게장과 평화주를 사 갔다”며 “지금이라도 웃으며 맞아주실 것 같은데...”라며 말문을 잊지 못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에셋코리아)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details like location, size, and pric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website URL.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Suwon Lotte Mart (수완 롯데마트 옆) featuring listings for various types of buildings and properti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phone numbe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dong Samil Real Estate (대인동삼일부동산) featuring listings for various types of buildings and properti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phone number.